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김주철¹⁾ · 오수석²⁾ · 김동수³⁾*

¹⁾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²⁾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³⁾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Survey on Satisfaction Survey for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Traffic Injury Patients

Juchul Kim¹⁾, Soosuk Oh²⁾, Dongsu Kim³⁾*

¹⁾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Polic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²⁾ Department of Policy Development,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³⁾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Korean medicine treatment satisfaction of 3,000 patients who are 19 or older with experiences of being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at Korean medicine clinics or Korean medicine hospitals after experiencing traffic accidents.

Methods :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service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satisfaction of user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Lastly, cross analysis(chi-square)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Results : Firstly, 91.3% of the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t Korean medicine clinics, with the most satisfactory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 the order of acupuncture, moxibustion, cupping, Korean physical therapy, herbal acupuncture, Chuna manual therapy, herbal medicine, and others. Secondly, 71.3% of the patients answered that outpatient treatment was appropriate while 65.3% of the patients answered that hospitalized treatment was appropriate regarding duration of treatment at Korean medicine clinics, mostly being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duration at Korean medicine clinics and Korean medicine hospitals. Thirdly, in a survey on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compared to occidental medicine treatment, 85.9% of the patients answered: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s higher compared to occidental medicine or similar".

Conclusion :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identified that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s high in motor insurance, and that higher satisfaction led to higher willingness to recommend Korean medicine treatment to others. Based on such results,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Korean medicine could be understood.

• 접수 : 2021년 11월 15일 • 수정접수 : 2021년 12월 9일 • 채택 : 2021년 12월 13일

*교신저자 : 김동수,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관 304호

전화 : +82-2-2657-5012, 전자우편 : dskim20@dau.ac.kr

Key words : Korean Medicine Treatment, Traffic Injury Patients, Survey, Satisfaction

I. 서론

자동차 수의 증가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의과는 26.6%, 의과는 0.9%로 의과 대비 한의과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²⁾. 특히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대비 의과는 0.3% 소폭 감소하였고, 한의과는 34.1% 증가하여 전체 진료비 2.3조원 대비 한의 진료비는 1.1조원으로 48.1%를 차지하였다²⁾.

이에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의 원인으로 문제제기 되기도 하였다. 그 간 한의과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침약, 약침 등의 불분명한 수가기준의 한의 의료행위가 과잉진료를 유인한다고 하였다³⁾⁴⁾⁵⁾⁶⁾. 그러나 한의진료비의 상승은 진료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외래치료 유도 정책, 한의약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마케팅 증가,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접근성 및 환자의 선호 등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⁷⁾. 또한 한의진료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실제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호하고 만족하여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⁸⁾.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호전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 한의치료 후 환자들의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었다⁹⁾¹⁰⁾¹¹⁾.

이렇듯 최근 자동차 보험 한의진료비 증가가 한의 건강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서의 한의진료가 과잉인지, 아니면 환자들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 있었으며, 주로 특정 한방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중심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치료의 주관적 호전도와 만족도에 대한 연

구였다¹¹⁾. 한의원이 대다수인 한의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전국단위의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관련 연구는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 번이라도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택 이유를 알아보고 환자 특성별 호전도와 만족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향후 한의 자동차보험 제도 변화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내용

설문항목 개발은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만족도와 호전도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작성하였으며, 예방의학과 보건행정학 교수 2인의 감수를 받아 최종 완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한의의료 인식도 7문항, 한의의료 효과 및 만족도 6문항, 한의의료 재이용 및 추천의향 3문항으로 총 23문항을 객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였다(Table 1).

2. 연구대상

연구 모집단은 교통사고 후 한 번이라도 한의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한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우리나라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일반인 대상 온라인 패널 46,205명을 대상으로 하

Table 1. Survey Items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Age, Economic class, Type of treatment, Treatment Period, Residence area,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 Reasons for visiting an Korean medical institution, Some of the cases in which patients Thought That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as greater than that of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s in treating disorders from traffic accidents, Satisfaction of Treatment Methods
Korean Medicine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and Treatment effect Symptom improvement after Korean medicine treatment, Adequacy of treatment period, Satisfaction degree of Korean medicine services, Treatment effects compared to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or not to reuse Korean medicine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diseases other than traffic accidents, Intention to Recommend

였으며 표본규모는 예산과 기간을 감안하여 총 3,000명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미리 추출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패널 중 우선 응답한 패널들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온라인 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온라인 패널들에 한해 설문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온라인 패널들은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3. 자료 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한의의료서비스 효과와 만족도를 보고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이용자특성에 따라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와 추천의향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program (IBM)을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4. 윤리적 검토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항목은 동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1040708-202108-SB-044).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다.

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성 62.4%, 여성 37.6%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후 한의 치료 중 주로 외래치료(73.3%)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통원 치료기간은 1~2주 이내 984명(36.4%), 3~4주 이내 840명(31.1%)이었으며, 입원 치료기간은 1~2주 이내 292명(36.5%), 3~4주 이내 203명(25.3%)이었다(Table 2).

2) 한의의료기관 이용자 특성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이유로는 '교통사고에 한의의료 치료 효과가 좋을 거 같아서'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질환 중 '교통사고 후 통증'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이 양방의료기관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고 45.2%가 생각한다고 하였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치료는 침·뜸·부항(27.7%), 한방물리요법(25.7%), 약침(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의 치료 중 주로 외래치료(73.3%)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가 양방치료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는 사고 후 통증(45.2%), 수술 외 모든 경우(29.8%), 감각장애 등(15.1%),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4.6%)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00)

		Classification	N(%)
Sex		Male	1,873(62.4)
		Female	1,127(37.6)
Age(years)		20-29	485(16.2)
		30-39	772(25.7)
		40-49	746(24.9)
		50-59	605(20.2)
		more than 60	392(13.1)
Economic class		High	72(2.4)
		Middle-high	578(19.3)
		Middle	1,355(45.2)
		Middle-low	828(27.6)
		Low	167(5.6)
Type of treatment		Outpatient	2,199(73.3)
		Inpatient	300(10.0)
		Outpatient & Inpatient	501(16.7)
Treatment Period	Outpatient	within 1 week	344(12.7)
		1~2 weeks	984(36.4)
		3~4 weeks	840(31.1)
		4~8 weeks	367(13.6)
		8~12 weeks	85(3.1)
		over 12 weeks	80(3.0)
	Inpatient	within 1 week	177(22.1)
		1~2 weeks	292(36.5)
		3~4 weeks	203(25.3)
		4~8 weeks	89(11.1)
		8~12 weeks	22(2.7)
		over 12 weeks	18(2.2)
Residence area		Seoul	1,102(36.7)
		Gyeonggi · Incheon	859(28.6)
		Daejeon · Chungcheong · Sejong	223(7.4)
		Gangwon	46(1.5)
		Busan · Ulsan · Gyeongnam	339(11.3)
		Daegu · Gyeongbuk	251(8.4)
		Gwangju · Jeolla	171(5.7)
		Jeju	9(0.3)

2. 한의의료서비스 만족도

1) 이용자특성에 따른 만족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 남성 3.10 ± 0.513 ,

여성 3.10 ± 0.517 로 조사되었고, 독립표본 t검정결과 p-value가 0.999로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4). 연령에 따른 만족도는 50세 이상 59세 이하가 3.12 ± 0.5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3.08 ± 0.524 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N(%)	Sum(%)
Reasons for visiting an Korean medical institution	Korean medicine treatmen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traffic accidents	1,775(59.2)	
	The patient did not experience effective treatment at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s (clinics, hospitals)	495(16.5)	
	Although the patient's treatment at an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 has been ended, the patient had recurring symptoms	159(5.3)	3,000 (100.0)
	Although there has been progress after treatment at an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 the patient hoped to receive stress disorder treatment as well	547(18.2)	
	Others	24(0.8)	
Some of the cases in which patients Thought That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as greater than that of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s in treating disorders from traffic accidents	All cases after traffic accidents not requiring surgery	893(29.8)	
	Pain after traffic accidents	1,355(45.2)	
	Stress disorder including paralysis of hands and feet	139(4.6)	3,000 (100.0)
	When there is disturbance of senses without pain or paralysis	454(15.1)	
	I don't know	159(5.3)	
Satisfaction of Treatment Methods	Acupuncture · Moxibustion · Cupping	831(27.7)	
	Pharmacopuncture	549(18.3)	
	Herbal medicine	333(11.1)	3,000 (100.0)
	Korean physical therapy	771(25.7)	
	Chuna manual therapy	510(17.0)	
	Others	6(0.2)	

Table 4. Satisfaction Degree by Sex

Division	N	Mean±Sd	t	F	p-value
Satisfaction degree					
Male	1,841	3.10±0.513	0.002	0.768	0.999
Female	1,105	3.10±0.524			
Total	2,946	3.10±0.517			

†Result of independent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Table 5. Satisfaction Degree by Age

Division	N	Mean±Sd	F	p-value	Post-hoc
Satisfaction degree					
<20	471	3.10±0.539	0.385	0.819	No significant difference
30~39	761	3.08±0.524			
40~49	739	3.09±0.518			
50~59	591	3.12±0.501			
≥60	384	3.10±0.499			
Total	2,946	3.10±0.517			

†Result of ANOVA

2) 한의치료 효과와 만족도

한의진료 후 증상의 개선 정도는 호전(50.7%), 약간 호전(29.2%), 우수(15.0%) 순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조사되었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간에 대한 적정성은 외래통원의 경우 적정했다는 응답이 71.3%였으며, 11.6%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입원의 경우 65.3%가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17.1%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응답자의 74.4%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한의의료기관의 치료효과는 양방의료기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42.5%) 높은 것으로(37.6%) 나타났다. 응답자의 91.7%는 교통사고 이외의 질환으로 진료 받을 일이 있을 경우 한의 의료를 재이용하겠다고 하였다(Table 6).

3) 만족도에 따른 한의의료 추천의향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한

Table 6. Korean Medicine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and Treatment effect

Classification		N(%)	Sum(%)
Symptom improvement after Korean medicine treatment	Outstanding: Dissipation of recognized symptoms or motor disturbance or improvement of 70% or higher	451(15.0)	3,000 (100.0)
	Improvement: Improvement of recognized symptoms or motor disturbance by 50%~70%	1,520(50.7)	
	Slight improvement: Improvement of recognized symptoms or motor disturbance by 30%~50%	875(29.2)	
	Poor: No change or exacerbation of recognized symptoms or motor disturbance	45(1.5)	
	I don't know	109(3.6)	
Adequacy of treatment period	Outpatient	Adequacy	1,926(71.3)
		insufficient	314(11.6)
		long	341(12.6)
	Inpatient	I don't know	119(4.0)
		Adequacy	523(65.3)
		insufficient	137(17.1)
		long	110(13.7)
	I don't know	31(1.0)	
Satisfaction degree of Korean medicine services	Very satisfied	514(17.1)	3,000 (100.0)
	Satisfied	2,231(74.4)	
	Dissatisfied	168(5.6)	
	Very dissatisfied	33(1.1)	
	I don't know	54(1.8)	
Treatment effects compared to occidental medical institution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Very high	175(5.8)	3,000 (100.0)
	high	1,127(37.6)	
	Similar	1,274(42.5)	
	Low	249(8.3)	
	Very low	62(2.1)	
	I don't know	113(3.8)	
Whether or not to reuse Korean medicine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diseases other than traffic accidents	Yes	2,750(91.7)	3,000 (100.0)
	No	250(8.3)	

Table 7. Cross Analysis of Intention to Recommend and Satisfaction

(N=2,958)

Variables	Satisfaction		Sum	P-value	
	High (Very High+High)	Low (Very Low+Low)			
Intention to Recommend	Yes	2,704 (95.5)	53 (42.1)	2,757 (93.2)	0.000
	No	128 (4.5)	73 (57.9)	201 (6.8)	
	Total	2,832 (100.0)	126 (100.0)	2,958 (100.0)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 < .05$, Result of chi-square test

의의료 추천의향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의의료 추천의향이 있는 것 ($p < 0.001$)으로 나타났다(Table 7).

IV. 고찰

조사결과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한 주된 이유로 환자의 59.2%가 교통사고에는 한의의료 치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고, 환자 중 18.2%는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호전은 있었으나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라는 응답에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이 양방의료기관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질환으로 환자의 45.2% 교통사고 후 통증 질환이라고 하였으며, 환자 중 29.8%는 수술이 필요치 않는 교통사고 직후 모든 경우로 답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제외하고 교통사고 후 대부분이 겪는 통증과 후유장애에 한의의료 치료효과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상병으로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의 긴장(S3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의 긴장(S43) 등이 다¹²⁾. 이는 외과적 처치 보다 통증 및 후유증 치료로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¹³⁾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의료 영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⁹⁾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을 과잉진료에만 초점을 맞춰 심사기준 강화

등 물리적·제도적 장치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자가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료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의진료비 증가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상의 개선 정도는 우수 15.0%, 호전 50.7%로 한의 치료 후 대체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17.1%, 만족 74.4%로 응답자의 91.5%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선행연구 결과¹⁰⁾¹⁴⁾와 동일하게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¹⁰⁾의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환자가 비용부담에 대한 저항이 적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만족도가 분포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환자의 73.3%가 외래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10.0%는 입원 치료, 16.7%는 외래통원과 입원 치료를 둘 다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외래통원 치료기간은 1~2주 이내 36.4%, 3~4주 이내 31.1%로 외래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71.3%는 치료기간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1~2주 이내 36.5%였고 3~4주 이내 25.3%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중 65.3%가 치료기간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17.1%는 입원 치료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료를 받는 건 환자가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입원 치료기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료 받았던 항목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침·뜸·부항이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한방물

리요법 57.1%, 약침 40.6%, 추나요법 37.7%, 한약 24.7%이었다. 주로 환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침 치료나 추나요법과 같은 치료법이 환자의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대표적인 한의치료 방법인 한약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로 한정되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일반적인 한약 처방에 대한 진료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내원환자의 한약 처방일수가 최소 10일 이상임을 감안하면¹⁵⁾,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약 처방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객관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17.1%, 만족 74.4%로 91.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의료기관이 양방의료기관보다 치료효과가 환자의 43.4%가 높다고 하였고 42.5%는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는 환자들의 85.9%가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과 치료효과가 의과에 비해 더 높거나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의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는 것은 환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침·뜸·부항, 한약, 한방물리치료 등 한의 치료법이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 한의료를 재이용 하겠다는 응답이 91.7%였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게 한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이용 의향, 타인 추천의향이 높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¹⁶⁾¹⁷⁾¹⁸⁾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환자 재이용 경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 한의치료를 경험한 환자들로 한정되어 한의치료를 호의적인 일반인을 모집단으로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설문조사 전 특성에 따라 할당하여 확률표본추출을 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순서대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조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반인이 대상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택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만족도에 영향을 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정보 부

족으로 인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족도 결과는 다른 요인의 영향이 혼합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대한 3,000명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19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의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의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V. 결론

교통사고 후 한 번이라도 한의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 3,000명 대상으로 2021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한의치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74.4% (2,231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진료 후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호전(50.7%), 우수(15.0%), 약간 호전(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27.7%), 한방물리요법(25.7%), 약침(18.3%), 추나요법(17.0), 한약(11.1%) 순이었다.
2. 한의의료기관 치료기간에 대해 외래통원은 71.3%가 입원은 65.3%가 적정하다고 함으로써 대부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치료기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의의료기관의 치료유형은 외래통원 치료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래통원 및 입원 치료(16.7%), 입원치료(10.0%) 순이었으며 외래통원 치료기간은 초진 내원일로부터 1~2주(36.4%)로 가장 많았고 입원 치료기간은 초진 내원일로부터 1~2주(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 양방의료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치료 효과에 대해 85.9%가 한의과 치료가 의과대비 효과가 높거나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교통사고 후 한의과 치료가 의과치료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

으로는 사고 후 통증(45.2%), 수술 외 모든 경우 (29.8%), 감각장애 등(15.1%), 수족마비 등 후유 장애(4.6%)순으로 나타났다.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한의치료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게 한의의료 추천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대한한 의사협회의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J. S. Kim, S. W. Changes in Providers' Behavior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7;27(1):30-38.
2. Health Insurance Review Assessment Service, Statistical Indicator of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Expense in 2014-2019.
3. Y. A. Song, L. S. Yang,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KIRI Report,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7.
4. T. J. Lee, "The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15.
5. H. S. Kim, J. H. Kim, J. T. Hwang, D. H. Kim, "The Effect Analysis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6.
6. J. M. Chae, H. J. Lee, H. M. Cho, "The Analysis of Oriental Medicine Expenditure Variation and Management Plan in the Automobile Insuranc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7.
7. Y. A. Song, S. Y. Lee,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7.
8. S. H. Kim,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Treatment Experiences of Patients with Serious Injury in Traffic Accidents Treated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9;40(2):72-88
9. H. R. Shin, A Survey on Satisfaction for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 237 Traffic Injury Patients,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8;28(3):67-78
10. K. J. Bae, Survey on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103 Cases by Traffic Accident,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5;25(3):65-79
11. H. R. Kim, Survey on Satisfaction and Symptom Improvemen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122 Cases by Traffic Accident,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8;39(3):61-72.
12.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tatistics Indicators of Medical expenses for Automobile Insurance in 2020.
14. S. Y. Chiang, Survey on Satisfac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131 Cases by Traffic Accident,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2012;29(3):68-79
15. E. K. Lee, Survey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Herbal Decoctions,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09;13(3):113-126.
16. E. J. Hwa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Public Hospital Quality of Care, Image, Role Performance, Satisfaction, Intent to (Re) visit, and Intent to Recommend Hospital as Perceived by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6;46(1):118-127
17. D. H. Yoon, A Study on the Outpatients' Health

Care Service Satisfaction and Their Revisits to General Hospital.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Welfare, 2012;12(14):131-146

18. S. W. Jeong, Determinants of Patients' Intent to Revisit at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Yonsei University.